

#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 지구 최종 선정



▲경기도청

## 연천군 일대 약 104만㎡ 규모 조성 북부 수도권 그린바이오 허브 도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 경기도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는 미래 농업과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연천군을 거점지역으로 하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했

다. 이번 공모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 지구 선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정부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 ▲기업지원 사업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육성지구는 연천읍·신서면·군남면 일대 약 104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울무·대양귀리·험프 등 천연물 기반 자원과 DMZ 접

경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유해 그린바이오 연구에 최적화된 곳이다. 육성지구는 이 같은 연천군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원료 표준화와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성장과 창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 주요 특화작물 원료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기반을 갖추고, 규제 개선과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육성지구 전담조직을 구성해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 주도로 기반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가-기업이 자립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노국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경기도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확인 받은 결과"라며 "경기도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전략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광양시, 철저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당부

올해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광양시는 관내 과수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겨울철 과원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지역 과수 농가에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죽는 병으로, 사과·배나무 등에 기주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병원균은 겨울철 저온기에는 활동을 멈추지만, 가지와 줄기에 궤양(암갈색 병반)을 형성한 채 월동해 일부는 생존하므로, 철저한 궤양 제거가 병원균 밀도를 낮추고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동계 정지·전정 시 사용

하는 가위·톱 등 작업도구와 장갑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큰 만큼, 작업 전·후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절단면에는 방제약제를 도포해 추가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과원 주변에 자라는 산사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비파나무, 꽃사과 등 기주식물도 주기적으로 살펴 궤양 증상이 있는 가지·줄기를 즉시 제거하고, 잘라낸 가지는 과원에 방치하지 말고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강인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팀장은 "과수화상병은 가지마름

증상과 혼동되기 쉽지만, 다른 가지가 지팡이처럼 구부러지고 잎이 붉은 채 말라 있으며, 줄기에는 뚜렷한 암갈색 궤양병반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자와 농기계·작업도구 소독은 반드시 실천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인상담소나 기술보급과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예찰과 현장 관리를 통해 관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etimes.com

# 익산시 "못난이 고구마, 모양은 달라도 맛은 그대로"

## 못난이 고구마 소비 촉진 특별 홍보·판매 행사

익산시가 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27일 시청 1층에서 '못난이 고구마 소비 촉진 특별 홍보·판매 행사'를 열고 상품성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못난이 고구마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불필요한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모양은 일정하지 않지만 맛과 품질이 우수한 고구마 700g을 2,000원이라는 합리적 가격에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못난이 고구마 소비 촉진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계속된다. 마트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소정의 못난이 고구마 홍보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결모양은 표준 규격과 다르지만 맛과 품질은 일반 고구마와 동일해 시민들에게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못난이 고구마 소비는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이번 행사가 농가 소득 향상과 친환경 소비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숙 기자  
kyungsuk@nongupetimes.com



▲고구마(픽사베이)

# 안성시, 가축전염병 원천봉쇄를 위한 방역 총력

## 고병원성 AI·ASF 방역 현장 직접 점검

안성시는 최근 철새 도래 마릿수 증가, 과거보다 고병원성 AI가 일찍 발생하는 등 전국적 오염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관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은 지난 27일(목) 옥산동에 위치한 알미산 거점소독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시설은 일평균 약 170대의 축산 관련 차량이 방문하는 곳으로, 남상은 부시장은 차량 내·외부 및 대인 소독 절차 등 시설 운영 실태와 고병원성 AI 및 ASF 방역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1층 생활과학관에서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장,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남부지소장, 축산관련단체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고병원성 AI 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장의 주재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렘피스킨병(LSD) 등 4대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역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인접 시군인 화성·평택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과 일죽 및 알미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청 3대, 읍·면·동 12대, 축협 공동방제단 4대, 농식품부 지원 2대 등 총 21대의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가금 및 양돈농장 진출입로,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상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임실군, 2025년산 벼 보급종 신청 접수

임실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해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2025년산 벼 정부 보급종 신청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보급종 공급은 농업현장의 종자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적 품종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추진된다. 올해 임실군에 공급되는 벼 보급종 품종은 신동진, 참동진, 동진찰, 해담, 해품 등 5품종으로, 공급 예정 물량은 약 74톤이다.

해당 품종들은 지역 재배 환경에 적합한 품종으로, 농업인들에게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재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종자 신청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2026년 2월 2일부터는 잔여 물량에 한해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재고 소진 시 종료된다. 임실군 내 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벼 보급종은 미소독 종자로만 공급되며, 신청 후 국립종자원의 수송지시가 완료되면 품종 및 수량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군은 농업인들이 신청 전 희망 품종과 수량을 충분히 검토해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6년 1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 농업인이 신청 시 선택한 지역 농협을 통해 보급종이 공급되며, 개별 신청 물량은 2026년 2월부터 입금 확인 후 배발송 또는 방문 수령 방식으로 제공된다.

# 과수 종자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 필수

## 과수 종자(묘목)를 수입하려면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정 종자산업법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시행일 2023.12.28.)

신고대상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과수 종자(묘목)

신고내용

수입 종자의 작물명과 학명, 품종 명칭, 용도, 수량,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등  
첨부서류 : 신고품종 사진 또는 카탈로그, (식물검역대상이라면) 식물검역 합격 증명 서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대리인 신고시) 대리권 증명서류

증명서발급

종자수입 신고서를 받으면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발급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처

농작물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www.seednet.go.kr)

산림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fsv.forest.go.kr)